

3-3-1

강원상품권(GangWon) 관련 관계자 회의

□ 관련공약

- 공 약 명(3-3-1) : 강원상품권(GangWon) 유통사업
- 공약내용 :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순환 자립경제 구축을 위한 강원상품권 유통사업, 대행금융기관 지정, 전산관리 시스템 구축 등

□ 소통실적

- 일 시 : 2016. 7. 13(수) 11:00 / 2016. 11. 30(수) 11:00
※ 강원통화 관련 전문가 간담회 : 2016. 3. 28
- 장 소 : 춘천시 애니메이션박물관/녹색도시체험센터(강릉시)
- 참 석 : 강원도 관계자, 시군 관계자 50여명
- 내 용 : 상품권 관련 추진개요 및 협조사항, 활성화 방안 논의

□ 실적자료



시군 관계자 회의(2016.7.13.)



시군 관계자 회의(2016.11.30.)

강원통화(상품권) 관련 전문가 간담회 결과

<회의개요>

- 일시/장소 : '16. 3. 28(월) 10:00~11:20, 통상상담실
- 참석인원 : 경제진흥국장 외 6명 * 주재 : 도지사
 - 강원대 경영학과 강윤식 교수, 한국은행강원본부 박종필 과장, 농협은행중앙회 정병렬 차장·최인탁 과장, 농협은행강원영업본부 김성용 단장, KT 플랫폼 서비스사업단 송명빈 부장

□ 주요 논의사항

건의자	건의내용
도지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사대금 및 복지대금 지급을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 - 건설, 건축, 복지 관계자와의 별도 간담회 개최
강원대학교 강윤식 교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역외유출 방지 차원에서 가맹점 위주로 경제적 효과는 미미하므로 오픈형이 바람직 - 통화로서의 기능 측면 ◦ 도민 인식이 중요하므로 처음부터 대대적으로 하기 보다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단계적 접근 필요 ◦ 건설공사 대금은 입찰조건에 명기하면 문제가 안됨 - 과도하게 지급할 경우 민원소지가 있음 ◦ 통화 관점에서 중장기적으로 할인, 할증 등이 없는 것이 바람직 하나 초기단계 활성화 차원에서 할인제 필요
한국은행 강원본부 박종필 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권종은 5만원권 보다는 1천원권이 소비확대에 더 도움이 됨 ◦ 공사대금 지급비율은 경기변동에 따라 탄력적 운영 필요 ◦ 공사대금으로 지역자재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소비기반 구축 필요 ◦ 환전, 현금영수증 발급 등 의무화를 위해서는 가맹점 필요 - 취지에 맞게 업체 제한, 추후 오픈형 전환 검토
KT플랫폼 서비스사업단 송명빈 부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롯데의 경우 할인액은 판매촉진을 통해 보상받지만 도의 경우 활성화를 위한 할인을 적용시 순수 공적자금 투입 필요 ◦ 할인율은 5%가 적정하며, 차액에 따른 “깡” 예방 등 안정적 운영을 위해 단계적으로 접근(공사대금 최소화, 할인율 차등적용 등) ◦ 상품권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해 나가야 하는데 해킹 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→ 클로즈 체킹, 도차원 시스템 구축 등 ◦ 유통과정에서 특정 부류에 이득이 집중되면 부정적 여론 형성
농협은행 강원영업본부 김성용 단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공사대금을 1천원권으로는 지급하는 것은 지급방법, 금고보관 등 어려움이 있으므로 5만원권이 필요 ◦ 복지대금 일부 지급시 입금 전 일괄구매 후 배부 → 본인 동의 필요
농협은행중앙회 최인탁 과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◦ 전산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인센티브(할증, 할인, 포인트)에 대한 조기 정립 필요 → 포인트제 적용시 추가 시스템 도입